

아이티켄, 프린터부품 공장 화재...

솔벤트 여과과정 시험가동중 사고 ... 재산피해 3억원에 인명피해는 없어

4월8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산업단지 소재 화학물질 취급기업인 아이티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화지점인 프린터부품 공장 4층 1020 평방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억9000만원의 피해를 내고 1시간42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근로자들이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화학차와 소방차 등 11대와 소방인력 50여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나 공장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솔벤트(Solvent) 여과과정 시험가동을 하다 불이 났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4/09>